

익산, 800명 일자리 만든다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올해 68억원 투입 170개 기업지원 사업 추진

익산시가 올해도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일자리 컨트롤타워인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해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침체된 지역경기 극복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연 고용안정 일자리센터가 올해 800명 일자리 창출, 170개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목표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는 지난해 45억원(국비 35억원)에 이어 올해 68억원(국비 55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힘을 예성이다. 다음달까지 구인기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구인·구직 미스매치 선제대응 프로그램'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전염병 대비 방역 프로그램', 신입사원 OJT·워크숍, '기업포탈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술-고용연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을 윈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며 신기술산업과 전·후방기업들의 활성화와 집적화를 위해 SW·기자재·공간 임차비, 홍보비 등도 지원한다. 기반 강화를 위한 시제품, 금형설계 지원을 통해 애로 기술 해소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로 구직자들에게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상담과 동행면접을 통해 36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현장중심의 대면·비대면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해 구직자들에

게 필요한 채용정보 제공과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진행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고용연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근로, 생산 환경·공정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7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시는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워크넷이 제공한 취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11월 취업건수는 8천942건(정부 일자리사업 포함)으로 센터 설립 전인 2019년 7천227건 대비 123%가 증가했다. 정현을 시장은 "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인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활용해 고용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취약계층 담당자 등 총 7명을 소방안전책임관으로 위촉했다.

'우리는 익산 지역 안전과수꾼'

익산소방서, 취약계층 위한 소방안전책임관 위촉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취약계층 담당자 등 총 7명을 소방안전책임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시설(족방,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소방시설 미비, 건물 외벽의 가연성 자재로 화재 시 급격한 연소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소방서는 15일 황등면사무소

소방안전책임관 위촉식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최소화와 거주자 안전관리를 위해 주거시설 안전 확보에 나섰다. 또한 위촉식과 함께 각종 위험요인 발견 시 소방관서에 신속한 연락과 초기 대처할 수 있는 소방안전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소방안전책임관은 화재안전 관련사항을 취약계층에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구에 소화기 등 사용·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익산 지역 안전과수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공무원 부정부패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군산시, 오늘부터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운영

군산시는 공직비리신고 활성화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18일부터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군산시의 명예를 위해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으로 '부정부패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아너 코드(Honor code)를 제안해 공직자로서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겠다고는 다짐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을 도입했다.

기존 신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본 시스템은 IP추적방지 등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신고시스템이다. 제보자는 정략, 고품수수, 부당업무지시 등 공직내부 비리행위와 최근 이슈가 되는 있는 갑질, 성희롱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군산시 홈페이지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 모바일로 '레드휘슬'을 검색해 웹프라인 앱을 설치하거나, 직접 레드휘슬 웹사이트(www.redwhistle.org)에 방문 또는 스마트폰으로 군산시에서 배부할 예정인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된 '클린스티커'를 스캔 접속, '군산시'를 검색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시 감사담당관 담당자에게 통보되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 1명만 접근 권한이 있어 신고사항은 철저한 보안 속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신고자는 레드휘슬 웹사이트에 접속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익명상태에서 감사담당관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고품질 조사료 공급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익산군산축협 농식품부 공모 선정, 국·도비 3억4500만원 확보

익산 함라면에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를 저장·공급할 수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가 건립된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3억4,5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인 익산군산축협은 올해 함라면 함열리 가축경매시장 인근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1,807㎡ 규모의 조사료 보관창고와 계근·소독시설, 사무실을 갖춘 조사료 유통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조사료 유통센터는 대형 곡포 사일리지의 아와 방치로 인한 손실 등을 해소해 농가에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하고 저장하는 시설이다.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이용이 확대되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맛·건강 챙기는 익산 대표 음식점 육성

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선정 홍보·상수도 요금 감면 등 혜택

익산시가 맛과 영양,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지역의 대표 음식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여 있는 향토음식점과

대를 이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물림 맛집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물림 맛집은 지난해 시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4 곳이 선정됐다. 선정업소에 대해서는 대를 이은 가족사진과 함께 대표 메뉴, 연력 등 LED 홍보 패널이 지원되고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조례 제정

지난 15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익산 나선거구)은 의원발의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시기와 규모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

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 병해충과 돌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대학교 정승우 교수 대한환경공학회 '학술상'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승우 교수가 최근 온라인으로 거행된 '2021년 대한환경공학회 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환경공학회는 1978년 설립되어 현재 회원 9374명이 가입된 우리나라 최대 환경학술단체로, 매년 환경공학 분야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회원 1명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승우 교수는 2020년 한 해 동안 12편의 환경공학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거품을 환경공학에 응용한 연구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승우 교수는 현재 군산대학교 학생처장을 맡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주요업무 보고회

군산시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강임준 시장 주재로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에 대비한 국·소별 보고시간을 안내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정부의 종이 없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회의시스템 구축에 맞춰 노트북 및 태블릿 PC로 진행됐다.

보고회를 통해 시는 "시민체감 경제활력! 균형있는 행복도시!"를 시정목표로 6대 세부추진전략을 통한 주요과제 175건, 일반과제 403건 등 총 578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소별 주력사업에 대한 보고와 정책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다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 논의했으며, 시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 만큼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 점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